남원 '함파우 아트밸리' 밑그림 완성

시, 마스터플랜 수립 중간보고회
관광지 문화산업화로 경쟁력 회복
내년 4월까지 단계별 사업안 마련
국·도비 확보, 행정절차 등 진행

18일 남원시청에서 열린 '함파우유원지·남원관광지 마스터플랜 수립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 중간보고회'에서 최경식 시장 등 관계자들이 용역사의 설명을 듣고 있다. <남원시 제공>

남원시가 핵심 사업으로 추진 중인 '함파우아트밸리 프로젝트'의 밑그림이 나왔다.

남원시는 최근 최경식 시장과 관련 사업부서 관계자, 용역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함파우아트밸리 프로젝트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함파우아트밸리 프로젝트는 남원의 핵심관광지인 함파우유원지와 남원관광지 일원을 문화산업화 해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회복하자는 취지로 추진 중인 대규모 문화 프로젝트다.

보고회는 용역의 총괄 관리자인 ㈜씨에이플랜 정승영 대표가 함파우아트밸리 마스터플랜 수립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참석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지난 4월 용역 착수 이후 시는 용역사 등과 지속적으로 업무를 협의하며 의견을 조율했고 지역별 우수사례 벤치마킹과 건축, 디자인, 조경 등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의 의견도 적극 반영해 마스터플랜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노력해 왔다.

보고회에서는 앞서 착수보고회 당시 논의됐던 ▲유원지 내 기조성시설과 신규시설과의 연계방안 ▲유원지 진입성 강화방안 ▲뛰어난 작품성을 갖춘 건축 디자인 ▲미디어아트 활용 상징성 제고 방안 ▲담수시설 확보의 현실적인 방안 등이 더욱 짜임새 있게 소개됐다.

용역사는 보고회를 통해 추가 제시된 내용에 대해 검토와 자문을 거쳐 마스터플랜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요 도입시설(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제2관, 도자전시관, 옻칠공예전시관 등)에 대한 타당성 조사 등의 용역도 병행 추진해 사업의 물리적 시간을 단축하고 시설 조성에 필요한 국·도비 예산확보 및 사전 행정절차 등에 나설 예정이다.

또 각종 영향평가와 도시관리계획 등을 용역사와 협업해 내년 4월까지 도시관리계획(유원지·관광지조성계획) 등 인·허가와 단계별·연차별 사업추진방안을 마련한 뒤 본격적인 함파우아트밸리 프로젝트를 추진할 방침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그간 함파우아트밸리 프로젝트의 초석을 다지는 밑그림을 그렸다면 지금부터는 그 밑그림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사업을 실행해야 한다"며 "행정, 용역사, 전문가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시민의 의견과 아이디어를 충분히 수렴 검토하는 등 체계적인 사업 추진에 힘써달라"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남원 다문화 인재 양성·유학생 취업 지원

RIS 지역혁신 자율과제 공모 선정…글로벌 집중캠프 운영

남원시가 2023년 RIS 지역혁신 자율과제 공모사업 '더불어 사는 어울림 사회' 분야에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건강한 다문화가족 육성사업' 과제가 선정됐다.

RIS 지역혁신 자율과제 공모사업은 대학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지역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남원시는 지난 7월초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건강한 다문화가족 육성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 후 8월말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이에 따라 시는 전주대학교와 컨소시엄을 통해 연간 총사업비 1억원(도비 7000만원, 시비 3000만원) 규모로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건강한 다문화가족 육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글로벌 다문화 청소년 인재양성과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의 남원 시 취업과 정주로 이어지는 지역발전 체계 구축을 목표로 다문화 글로벌 집중캠프 운영한다.

이와 함께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언어 능력을 향상 시키고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에게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취업연계 프로그램 지원으로 학령인구 감소를 막고 인구소멸 등 지역현안 문제를 해결해 나아갈 방침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대학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연계·협력해 지역소멸 대응과 지역현안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정읍시, 전국 첫 '전통 우물' 보존 조례 제정

이도형 시의원 발의…"'우물의 도시' 문화·관광자원 활용"

이도형 시의원

정읍시가 전국 최초로 전통 우물에 대한 체계적인 보존과 연구를 위한 조례를 제정해 주목을 받고 있다.

정읍시는 시의회 이도형 의원이 제287회 임시회를 통해 '정읍시 우물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발의, 통과함에 따라 시행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

이 의원은 "지역명은 대체로 자연적 특성을 반영하여 명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 지역은 땅을 조금만 파도 물이 나오는 지역이어서 옛 어르신들은 샘(우물)고을이라고 했다"며 "우물의 도시인 정읍의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 나아가 유서 깊은 우물을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읍시 우물 보존 및 관리 조례'를 발의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정읍은 고려시대에 편찬된 역사서인 삼국사에 백제시대에는 정촌(井村)이라 불렸는데 경덕왕 16년(757년)에 정읍현으로 바뀌었다는 기록이 있다.

하지만 근대화를 지나면서 상수도 보급으로 인해 지역에 있는 전통 우물들이 거의 사라져가고 있는 상태다.

이 의원은 "앞으로 정읍시의 지역명칭의 상징성을 대표하는 '우물'을 발굴해 문화재로서 가치를 잃지 않도록 정읍문화원, 향토사학자들과 함께 보존 및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는 지난 15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돼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고창 청소년 문화영재 교육

문화관광재단, 초·중 25명 모집

고창문화관광재단이 창의적 문화영재 교육프로그램의 참여학생을 모집한다.

고창문화관광재단은 22일까지 '2023년 창의적 문화영재 교육프로그램-감각너머 감쪽문화영재 예술캠프'에 참여할 도내 아동·청소년 25명을 선착순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대상은 전북도내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이며 모든 과정은 무료다.

교육과정 신청방법과 세부사항에 궁금한 점은 고창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면 알 수 있다.

교육과 캠프으로 나눠 진행되는 교육과정은 첫 단계로 10월14일, 21일, 28일 총 3회에 걸쳐 예술강사와 함께 주제별 사전교육을 통해 친밀감을 형성하는 '멘토-멘티 교육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이어 두 번째 단계인 '융합예술캠프'는 11월10일부터 12일까지 2박3일의 일정으로 참여 학생들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자극하는 다양한 예술활동으로 하게 된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전깃줄 치우니 더 아름다운 구시포 해변

전선 지중화와 새 도로포장으로 말끔히 정비된 구시포해수욕장.

고창군, 지중화 공사 완료

고창군이 지난 2021년부터 3년간 사업비 17억원을 투입, '구시포해수욕장 지중화공사'를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한전 등 협력업체들과 지난 2021년 9월 협약을 맺고 올해 2월부터 시설공사에 들어가 어지럽게 얽혀 하늘을 가리던 전선과 통신선 모두를 지하로 매설한 사업이다.

또 해수욕장 지중화공사의 일원으로 해수욕장 거리를 전면 재포장해 이전보다 훨씬 쾌적하고 안전한 구시포해수욕장으로 탈바꿈했다.

인근 주민과 상인들은 지중화 공사에 따라 "전깃줄을 치우니 아름다운 노을이 보인다"며 크게 반기는 모습이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정읍체육공원·신태인체육관 시설 개선

공모사업 선정…국비 4억원 확보

정읍시 정읍체육공원 내 장애인테니스장.

정읍 신태인체육관과 정읍체육공원 내 장애인테니스장이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을 받아 시설확충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정읍시는 문체부의 '2024년도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 공모사업'에 시가 응모한 신태인체육관과 정읍체육공원 내 장애인테니스장 등 2곳이 대상으로 선정돼 국비 4억2000만원을 확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올 1월 안전취약시설로 고시된 신태인체육관은 이번 사업을 통해 음향설비와 슬래브, 벽체 등 개보수를 통해 보다 안전한 체육시설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정읍체육공원 내 장애인테니스장은 노후된 하드코트 1면 교체와 비가림시설 기능보강을 통해 생활체육과 장애인체육활동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지속적인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다양한 체육시설을 확충하겠다"며 "노후된 체육시설은 안전하게 개선해 시민의 생활체육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